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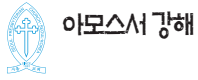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심판

(아모스 3: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인생, 참 회개를 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므로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전히 범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점진적 심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2:9).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군의 이방 나라를 먼저 때리십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1)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사 14:1)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었습니다.

(2) 애굽에서의 구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2:10).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 유일하고 독특한 은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3:2).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과 구원은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던 또 하나의 유례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은혜입니다.

2. 경고장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3:3).
하나님은 아홉 가지 질문 속에서 이스라엘에 경고장을 발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하시지 않고 반드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가 어떤 때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어떤 때는 경제적 파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아홉 가지 질문은,
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3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사자가 울린 것이 없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4절).
우리의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③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죄가 있음을 보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④ “땃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어졌으며”(5절). 새를 잡으려면 반드시 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⑤ “잡힌 것이 없는데 땃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5절). 심판의 대상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시작됩니다.
⑥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6절). 이스라엘은 전쟁 시에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릴 때 두려워 아니할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⑦ “여호와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6절). 재앙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⑧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⑨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므로 예언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은 점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깊어져 바로의 궁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만이들과 만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말씀을 많이 들었든지 적게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양심과 속사람은 그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인생, 참 회개를 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과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다음 주일 아가페 타운 건축헌금

헌금 봉투에 가족 이름 명기토록

다음 주일 우리는 그동안 기도한 '아가페 타운 건축헌금'을 작성하고 드린다. 우리에게 맡기신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작은 것을 드러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구하는 것이다.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사랑의 집을 간구 하였더니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가페 타운-사랑의 마을'을 건립하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교회는 기도로 받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10,227 평의 너른 대지 위에 장애인을 위한 호산나 학교, 노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및 요양병원, 그리고 각종 집회 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

한 사랑의 마을을 건설하게 된다.

다음주일 우리가 작성하고 드리게 되는 헌금(헌 물)은 작은 샘물이 모여 큰 강을 만들고 마침내 바다 를 이루듯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여 사랑의 마 을을 건설하고 우리의 조국에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 자를 위한 종합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 로 바치는 정성을 통해 빠짐없이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헌금봉투에 가족 이름을 모두 기록하면 헌금자 명 단을 동판에 새겨 후대에 남긴다.

교회차량 아가페타운 방문시 주유비 지원

현재 우리교회는 교회 각 부서에서 교회차량을 사 용할 때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주유 를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가페 타운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경우에 는 교회에서 주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더욱 많은 성도들과 부서에서 아가페타운을 방문하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대학부 특강

대학부 특강이 오늘 오후 3시30분 701호에서 열린 다.

이번 특강은 '나의 대학·청년부 시절'이라는 제 목으로 우리교회 김민철 집사(KBS 기자)가 강사로 선 다. 대학부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2008 홍해작전 승전 눈앞에

6월25일(수) - 홍해작전 승전의 날로 선포

마침내 홍해작전 승전의 날이 다가왔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지난 6일부터 25일 승전의 날까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모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건너고 있다.

교회는 6월25일(수)을 홍해작전 승전의 날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홍해를 건너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홍해에 빠진 성도들을 찾아 기도로 힘을 북돋우고 있 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기



도의 응답을 받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 평화, 정의를 세우도록 기도한다. 6월29일(주) 찬양예배는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로 드린다.

서울교회 카페 오픈

서울교회 홈페이지 교회학교와 기관 난에

서울교회 각 부서가 인터넷에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카페가 개설되었다.

서울교회 카페는 서울교회 홈페이지 (www.seoulchurch.or.kr) '교회학교와 기관' 난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된다.

가입방법은 교회학교와 기관 원편 상단에 있는 카페 개설신청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창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그 후 새로 나타나는 창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절차가 완료된다. 서울교회 카페는 현재 beta 버전(시험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이 사용하다가 버그나 개선사항을 발견하면 교회학교와 기관 원편 하단의 버그 신고 및 의견 나누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새로워진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성도들이 좋은 정보를 나누며 수시로 모이기에 힘쓰는 인터넷 선교의 장이 되도록 기도한다.



▶ 장신대는 해마다 김치신학세미나 시 장신대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강의 등을 해 주었다. 이에 6월 18일(수) 우리교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감사패 및 동시통역기를 기증하고, 교수·직원 위로회를 담당하였다.

하나님의 전(殿)에 바퀴벌레가?

음식을 찌꺼기나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진 곳에 반드시 서식하는 소위 바퀴벌레가 나의 안일과 편리함 때문에 거룩한 교회당에 생겨졌다면 얼마나 송구스러울까?

찬양대원 연습실이나 교회학교 모임 장소에서 물과 음식물을 성도의 교제 혹은 교회학교 시상품(과자류)이라는 미명하에 섭취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크게 아파하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흘리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고 하면서 8층의 만나 홀 식당 이외의 공공의 장소에서 도둑질 해온 것처럼 몰래 먹는 사람들이여!

이제 교양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신사, 숙녀가 됩시다.

-순례자 훈육주임-

민약한 자 구제 - 아가페타운 건립

아가페 타운 이렇게 지어진다

오정수 장로 (아가페 타운 건축위원장)

서울교회는 '많은 교회 중의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이후 10년 만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현당케 하시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민족의 구원선으로, 세계교회의 나침반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보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 위에 또 하나의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빈약한 자 구제라고 하는 교회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아가페 타운 건립이라는 크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장애우와 노약자를 돌보기 위하여 아가페 타운은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종합



아가페 타운 모형

적이고도 교회 구제사업에 알맞은 성경적인 복지타운으로 건립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호산나 대안학교와 호산나 전문대학이 이전하도록 준비될 것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우리교회 각 기관과 교회학교의 수련활동

과 교육활동, 각종 집회 등에 알맞은 집회 장소와 숙박시설, 주방시설, 체력단련시설이 준비되고 산상기도를 위한 야외집회장과 기도처소도 아름답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나아가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약한 노인들을 수발하기 위한 현대식 노인병원 건립을 놓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믿음생활하시고 봉사하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친부모처럼, 가족처럼 섬기는 실버요양시설이 건립되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억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기회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가 아가페 타운 건립에 기도의 벽돌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용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갈비

우진숙 (호산나학교 학부모)

내 아픔이 크면 다른 이들에 아픔을 볼 수 없듯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남의 슬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때에도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였고, 이해하려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였고, 견디기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온전치 못한 아이를 붙들고 "그저 살아가며 작고 사소한 것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강철 심장을 주세요."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며 소외된 채 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었다면 평생 사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호산나 학교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 이런 사랑은 이제껏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된 과정들을 통해 우리들을 싸매시고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고, 내가 잘났어도 못났어도 나를 나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의 어두움을 송두리째 도려내 보이시며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부족함들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감사의 마음을 주셨고, 모든 어려움들이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어져 감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셨고, 진짜 병든 자들은 자기 아픔에 빠져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겸손의 눈을 뜨고 주위를 바라봅니다. 작고 미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발맞춤 하여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시종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 주님이 이제 함께 계

아가페 타운을 꿈꾸며...



**사랑의 마을을 꿈꾸며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심을 드러내십시오. 비록 보잘것없고 어눌한 발걸음이지만 끝날 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서 계 시던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못나고도 연약하여 절망가운데 있던 우리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사랑의 마을을 꿈꾸며 호산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서울교회 교우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깊이 체험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긍휼하심을 한껏 베푸셔서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마을을 꿈꾸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던 그 언덕... 드러난 자 드러나지 않은 자 많은 무리들 속에 하늘 높이 손을 드시고 축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 올립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열두 바구니를 차게 거두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 기적의 한 조각 까지도 허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나아온 모든 무리들의 희생과 그 정성, 심지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신음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도 낭비 없이 거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흥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 밭을 내딛듯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름다운 아가페동산에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와 함께 홀로 영광받으소서.

